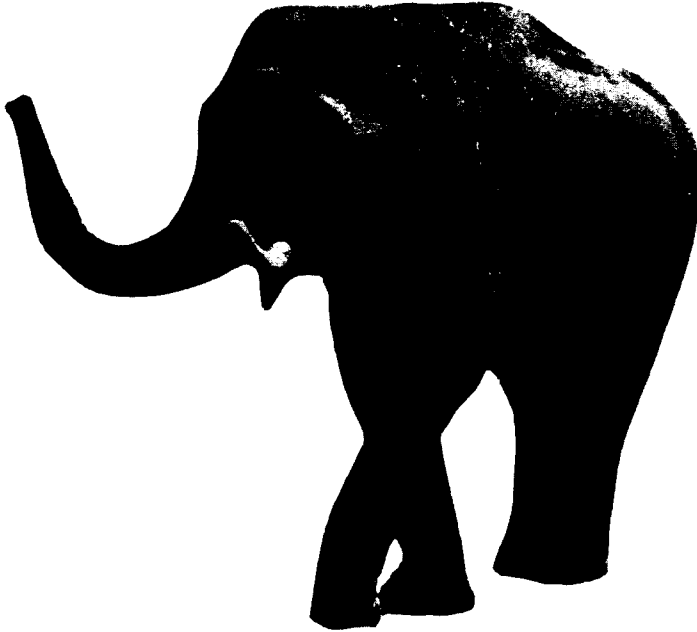


소방관 노릇하는 야수들



김 정 만
〈서울대공원 사육과장〉

야생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생(生)과 사(死)의 투쟁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영위권안으로 타동물들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의 싸움을 빼놓을 수 없다.

모든 동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일정지역까지의 선을 그어놓듯이 국경선의 표시와 같이 온무리들의 오줌과 똥을 싸놓은 후 다른 동물들이 국경선을 넘어올 때는 반드시 이 안에는 지금 어떤 동물이 살고 있다는 것을 침입자에게 알려주는 상호불가침의 조약을 맺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계의 야수들의 생활상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생존해있는 나라마다 법을 제정하고 법의 규제를 준수하게 하며 국제간에는 국제법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법에 앞서 인간 상호간에 벌어지는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문에 입각한 문서말고도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사회는 인간처럼 지켜야 할 각종 사항이 명문화된 문서나 국경선을 못넘어오게 하는 시설물이나 초소도 없이 동물 상호간에 지키고 경계하며 침범해서 안된다는 무언의 각종의 약속들이 있다. 예컨대 ① 타동물이 살

고 있는 영역권이나 ② 단독, 한쌍, 소군 및 대군집생활권에는 예고없이 무단침입하지는 않으며 ③ 동물이 종류별로 사료를 채식할 때 이를 간섭하거나 불법으로 침입하는 사례도 없으며 ④ 발정기 때 우위다툼이 끝나고 왕자가 선정된 후 타동물이나 가족외의 같은 종류의 동물이 철모르고 의지하려 들어올 때 ⑤ 새끼를 분만한 후 어미애비나 온무리가 보호해주고 있을 때 ⑥ 천재지변이나 자연계의 태양열과 물체의 마찰로 자연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등에는 무단침입을 하지 않음은 물론 기타 여러가지 동물 상호간의 무언의 약속으로 서로 피해의식을 주지 않으며 요령있게 살아가는 것이 동물생존의 진리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약속사항을 준수치 않을 때에는 죽는다는 진리와 종이 멸종되어간다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지구상의 3대거수종의 하나인 코끼리는 인도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로 2종류가 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육상동물중 가장 몸집이 크고 몸통의 무게는 12톤까지 나가는 거구이다. 그리고 무적의 왕자로 자기들이 살아가는 영역권에 침입하는 동물은 무조건 상

아로 들이받아 쓰러뜨린후 발로 밟아 떡을 만들어 버려야만 식성이 풀리는 폭군같은 괴력의 소유자이다. 꼬끼리 1마리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풀의 양은 3백20kg에 물은 1백90ℓ, 그대야만 자기 몸집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대식이이다. 또 꼬끼리로 한번에 빨아들이는 물의 양은 5.7ℓ로 1되 짜리병 3개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한입에 넣는 그야말로 먹기위해 태어난 짐승의 대표적인 동물이다.

이와같이 무적의 왕자인 꼬끼리떼 50~60마리가 집단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맹수들처럼 약육강식의 힘과 투쟁으로 모든 무리를 기르리며 향락을 누리지 못한다.

꼬끼리떼는 힘보다는 자기들이 선출한 여왕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살아가는 공처가가 되어야만 장가를 들기때문이다. 새야무리 힘이 센 수놈일지라도 여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무리에서 못매를 맞고 추방된후 초원의 방랑자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여왕의 남편감인 수놈은 무리의 길잡이 노릇은 물론 천적인 코뿔소, 사냥꾼, 기타 맹수가 공격해 오면 생사를 초월한 전투수사로 나가 싸우게 된다. 그동안 온무리는 안전시대로 피신을 하며 전투수사가 상처뿐인 영광을 안고 무리들앞에 나타나면 개신장군처럼 환영해준다. 이와 동시에 수놈은 아빠로서의 자리를 더한층 확고히 다져나가게 된다.

그뿐아니라 수놈은 수십마리의 꼬끼리가 먹어치우는 각종 영양가 많은 풀이 있는 곳을 경험과 영감으로, 바람따라 불어오는 풀냄새를 귀신같이 감지해낸후 온무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안내하여야만 한다.

이렇게 여왕꼬끼리의 손발이되어 단란하게 살아오다가 드디어 신방을 차리게 되면 포유동물중 임신기간이 가장 긴 6백50일만에 새끼를 분만하게 된다.

이때 꼬끼리떼는 어린 새끼가 자유롭게 활동할 때까지 온 무리가 강세경비태세에 들어가며 여왕과 새끼 꼬끼리가 있는 주변을 맴돌며 상소를 이동치 않고 풀과 나무가지를 뜯어먹는다. 이때문에 광활한 초원이나 산림지대가 황무지로 변하며 아프리카의 무서운 태양열로 인한 폭염과 지열,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질들의 미찰로 매마른 꼬끼리 어미와 새끼의 보금자리에 자연발화로 불이 나는 수가 많다. 그러면 꼬끼리떼의 무리는 불이 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당황한 나머지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스러운 여왕과 새끼의 안정을 위해 또 최선을 다한다. 마치 집더미만한 꼬끼리떼가 스크램을 짜듯이 발화시점 수위에 모여들어 2m이상의 긴 상아로 흙을 파헤쳐 치솟는 불꽃을 물대신 흙으로 진화시키며 혹시 꺼져가는 불씨나 연기가 여왕과 새끼의 코끝에 불안과 이상을

줄까보아 12톤의 육중한 거구를 흙에 덮여 꺼져가는 연기속으로 던져 뒹굴면서 그 큰 몸통으로 최후의 진화작업을 퍼기도 한다. 화상에도 아랑곳없이 이렇게 완전 진화작업을 한 후에도 이들은 다시 불이 살아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질구통같은 발바닥으로 밟아서 철저히 불씨를 없애는 등 여왕과 새끼가 탄생한 성스러운 보금자리를 온무리가 수호하는 무서운 집념의 생활철학을 지니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생태인 것으로 멧돼지가 있다. 멧돼지의 힘은 태산같다. 멧돼지가 화가나서 주둥이를 내세우고 돌진하여 들이받는 송곳니와 주둥이의 힘은 아랍드리 나무도 쓰러뜨릴만큼 대단하다.

평상시 이들이 산야에서 가족단위의 집단으로 서식하며 이동할때는 지독한 겁장기로 가랑잎 물아닥치는 바람소리에 도 놀라서 천길만길을 뛰는 습성이 있다.

그러나 초여름의 번식기가 되면 달라진다. 일부다처인 멧돼지는 이때가 되면 암놈들이 등산가들도 감히 등싱할수 없는, 태양빛이 잘 내려쬐이고 사방이 탁트인 능선의 한곳을 선택하여 주둥이로 땅을 한자끔 파서 편편하게 만든후 가랑잎이나 풀을 뜯어 말려서 깔고 새끼를 낳는다. 한배에 보통 5~7마리씩 5~7마리의 후궁들이 한꺼번에 집단분만을 한다. 암놈들이 새끼를 낳으면 수놈은 새끼와 암놈들을 보호하기위해 능선에서 불침번을 서며 경계를 한다. 만약 등산의 초심자들이 담배불 또는 취사후의 불을 잘못 다루어 불씨가 산밑에서 연기와 더불어 불길에 타오르면 경비보던 것을 즉시 중지하고 어미 애비가 함동으로 번개같이 하산하여 산불이 일어난 지점과 자기 새끼들이 있는 산등성이까지의 거리를 살핀후 불길이 번질것을 우려해서 1차로 가파른 곳에서 발화지점 쪽으로 각종 바위들을 주둥이로 받아 사력을 다해 굴러보낸다. 이렇게 하여 우선 산불 확산에 제동을 건후 불길이 어느 정도 수그러지면 불이 불고 있는 곳 가까이로 접근하여 주둥이와 송곳니로 땅을 파서 그 흙으로 불꽃을 완전히 뒤덮어 버리며 불이 일던 진화되고 나면 그 자리에 오줌, 똥을 흠뻑 싸놓고는 산꼭대기로 올라 가버린다.

자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활동할 수 있고 무리를 따로 온가족이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을때 까지 산림간수와 소방관 역할까지 다해주는 조수류가 이들 꼬끼리와 멧돼지 말고도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인간들은 감사해야 될 것이다.

비록 잘못하는 짐승들이지만 조물주께서 대자연에 내린 섭리가 동물과 인간은 공동으로 책임지고 존속해야 한다는 사실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멸종되어가는 동물들을 보호하고 더욱 사랑하여야만 할 것이다. ❧